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 방안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지 은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 방안 연구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지 은

인 준 서

이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 2. 연구사 검토 | 4 |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9 |
| II. <소나기>의 교과서 수록 목적과 양상 | 10 |
| 1. 독서 능력의 향상 | 12 |
| 2. 가치관 교육 강화 | 14 |
| 3. 인물에 대한 교육 | 17 |
| 4. 문학의 아름다움 향유 | 29 |
| III. <소나기>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 34 |
| 1. 성장소설로서의 <소나기> | 34 |
| (1) 이성과 죽음의 인식 | 35 |
| (2)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자아 | 37 |
| 2. 미적 구성물로서의 <소나기> | 38 |
| (1) 간결한 문체와 시적 표현 | 39 |
| (2) 상징과 의미 | 44 |
| (3) 문학적 심미성 고양 | 48 |
| IV. <소나기>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 | 50 |
| V. 결론 | 58 |

참고문헌

ABSTRACT

논문개요

'정전'이라는 것은 교육의 측면에서 정전은 가르쳐야 할 텍스트의 공식적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정전의 구성 과정에 문학교육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바로 정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문학 독서 방향을 이끌어서 취향을 갖게 하는 역할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의 문학 작품들은 정전으로 비롯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2차 교과서부터 7차 교과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문학의 정전으로 거듭난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국가의 의도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이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계속하여 수록되었다 할지라도 한 작품이 교과서에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실렸다는 것은 눈여겨볼 일일 것이며, 그 교육적·문학적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문학적 가치를 지닌 <소나기>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학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세 가지이다. 첫째,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점을 주목하여 각 시기별 교육과정 중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소나기>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하게 수록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다. 국어 교과서에 오랜 기간 수록되는 동안 같은 소설에서도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황순원의 <소나기>가 오랜 기간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소설의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소설에 대한 성장소설적 면모·미적 구성물로서의 면모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고 예문을 강화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소나기>가 내용적으로

는 미성숙한 주인공의 자의식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고 하여 성장소설로 분류되고, 표현적으로는 간결한 문체와 시적인 표현, 그리고 상징의 기법이 어우러져 미학적 서정소설로 분류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연구와 함께 <소나기> 교육 방안을 고안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실제로 <소나기>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7차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새로운 교수 방안의 계획도 학습활동 문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에 수록된 생명력을 분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교과서에 주로 수록된 사항으로는 '인물'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교육적 가치로는 성장소설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의 주인공과 함께 성장 가능한 점과 미적 구성물로서 독자들에게 심미성을 고양해 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새롭게 학습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현재 이 소설의 문학적 위상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연구주체의 예시 작품으로의 연구보다는 <소나기> 단독 작품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논문을 계획하였다. 한 작품에 대하여 2-7차 국어 교과서 수록양상을 살피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해 내며,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문학작품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앞으로도 교과서에 자주 수록되는 작품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연구들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광복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7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동시에 재편되는 것이 교과서인데, 이러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재편은 정권의 교체와 관련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책이나 신념을 정당화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편하였다. 교과서 중에는 국정 교과서인 국어 교과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조국애·민족애 등을 강조할 때에는 국어 교과서에 비교적 직설적인 논설문이나 수필글이 많이 수록되었고, 문학 교육, 즉 시나 소설은 사회성이 배제된 채로 예술적 순수함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제 2, 3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사회적 문제의식이 배제되고 전원이 강조된 작품, 즉 순수 문학이었다. 순수 문학은 이때부터 교과서에 빈번하게 수록되어 '교과서형 문학'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 문학의 '정전'이 형성되었다.

'정전'이라는 말은 측정의 도구인 '갈대'를 의미하는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되어 '규칙'이나 '법'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한 문화권 내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보존되는 텍스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¹⁾ 교육의 측면에서 정전은 가르쳐야 할 텍스트의 공식적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정전의 구성 과정에 문학교육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문화 공동체의 시간적 영속성과 가치의 정당성을 자명화하는 정전과 정치 공동체의

1) 존 길로리, 박찬부 역, 「정전」, 프랭크 란트키아·토마스 맥로프빈 공편, 정정호 외 공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6,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강진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p.283, 재인용.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의 교육이 접합되는 지점이 바로 문학 교육이기 때문이다.²⁾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바로 정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문학 독서 방향을 이끌어서 취향을 갖게 하는 역할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에 오래 수록된 문학 작품들은 정전으로 비롯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2차 교과서부터 7차 교과서까지 한 번도 빼 놓지 않고 수록되어 문학의 정전으로 거듭난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1953년에 발표되었으며, 그의 다섯 번째 단편집인 『학(鶴)』(1956)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59년 영국의 『encounter』지에 영역으로 게재되었고, 현재(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듯 황순원의 작품들 중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그의 나이 39세 때 지은 것으로, 단편 작가로서의 그의 솜씨가 무르익을 무렵의 작품이다.³⁾

이 소설은 1963년 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하여 중학교 국정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배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 소설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김종신은 이 소설은 황순원의 문학세계에서 그리 크게 주목받는 작품은 아니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꾸준히 실려 있어 대중적으로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소설 읽는 재미를 듬뿍 안겨다 주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 소설이 오랫동안 교과서를 점유하고 있고,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소년 소녀의 티없이 맑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⁴⁾고 설명하였다.

문학의 정전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

2) 차혜영, 위의 글, p.284.

3)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 : 시적 이미지의 미학」, 『한국 현대소설 작품론』, 문장, 1996, p.288.

4) 김종신, 『소설감상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135.

이, 이 작품은 바람직한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든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어 문학의 정전으로 구분되었다. 국가의 의도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국어 교과서에 이 작품이 계속하여 수록되었다 할지라도 한 작품이 교과서에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실렸다는 것은 눈여겨볼 일일 것이며, 그 교육적·문학적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문학적 가치를 지닌 <소나기>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학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세 가지이다. 첫째,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점을 주목하여 각 시기별 교육과정 중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소나기>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하게 수록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다. 국어 교과서에 오랜 기간 수록되는 동안 같은 소설에서도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황순원의 <소나기>가 오랜 기간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소설의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소설에 대한 성장소설적 면모·미적 구성물로서의 면모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고 예문을 강화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소나기>가 내용적으로는 미성숙한 주인공의 자의식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고 하여 성장소설로 분류되고, 표현적으로는 간결한 문체와 시적인 표현, 그리고 상징의 기법이 어우러져 미학적 서정소설로 분류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연구와 함께 <소나기> 교육 방안을 고안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실제로 <소나기>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7차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계획도 학습활동 문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이 소설의 문학적 위상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다른 연구주체의 예시 작품으로의 연구보다는 <소나기> 단독 작품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논문을 계획하였다. <소나기> 한 작품에 대하여 2-7차 국어 교과서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해 내며,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문학작품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황순원의 <소나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나기>의 작품론으로, 주로 '상징'이나 '문체'에 대한 연구, 둘째, 성장소설로서의 연구, 셋째, 교수법의 측면에서의 연구, 넷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 분석의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소나기>의 작품론 연구를 살펴보자. 박혜경⁵⁾은 <소나기>가 순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차원보다 더 복잡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소년과 소녀라는 명칭의 의미와 소년과 소녀의 대조적 이미지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전체적으로 간결한 단문장들의 연속, 장면 묘사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의 문체적 효과가 작품의 서정성에 기여한다고 하여 <소나기>의 상징적·문체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천이두⁶⁾는 단편 작가로서의 황순원의 문체적 특징을 언급하고, <소나기>의 문체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소나기>는 작가의 엄격한 지적 절제의 면

5) 박혜경, 「황순원 문학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새로쓰는 한국 작가론』, 상허학회, 백년글사랑, 2002.

6)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 : 시적 이미지의 미학」, 『한국 현대소설 작품론』, 문장, 1996.

모로서의 짧은 문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적인 이미지의 포착을 통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작가의 뛰어난 솜씨가 드러나는 작품이라 하였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려는 소년·소녀 사이의 아련한 마음의 교류를 그림으로써 그 설정된 상황 자체가 매우 섬세한 서정시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차가온⁷⁾은 황순원 소설에서 '이미지'와 '상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나기> 속의 상징을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징과 작품 전체 상황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소나기> 속의 상징체계를 이원론적 세계관의 반영과 통과제의 형식의 반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엄숙용⁸⁾은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소나기> 작품의 텍스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미 단위, 인물 자질, 문체 특징, 시점 전이, 은유, 시·공간 배경 등의 기호적인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텍스트가 어떻게 코딩화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러한 기호 작용들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문학작품에서의 기호 작용을 밝혔다.

둘째, 성장소설 연구의 예시 작품으로서의 <소나기> 연구를 살펴보자. 남미영⁹⁾은 성장소설의 본질을 밝히고, 이 연구에서 성장소설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성에 눈뜸'의 항목에서 <소나기>를 다루었다. 소년과 소녀만의 비밀의 공유과정을 통하여 이 소설은 통일성을 이루고, 주인공이 순진에서 성숙으로 나아갈수록 비밀도 작은 비밀에서 큰 비밀로 커지고 있다고 하여, 이 소설은 주인공의 성숙에 따라 비례적으로 비밀도 커지는 성숙의 플롯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비밀의 공유과정을 플롯으로 하여 작품에 부여하는 질서는 순진과 경험의 이항대립의 구조인데, 순진한 소년이 경험의 세계로 돌입함으로써 성인세계에 입사(入社)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7) 차가온, 「황순원 단편 소설의 상징체계 분석 : 「소나기」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 2004.

8) 엄숙용, 「황순원 소나기의 기호학적 분석」, 세종대 석사, 2004.

9)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 1992.

소녀의 죽음은 소년에게 있어서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마련된 통과제의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고성혜¹⁰⁾는 처음으로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성장소설의 교육적 의의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의의가 있는 연구를 하였다. 문학교육이란 소설 교육의 상위개념이고, 소설 교육이란 성장소설의 교육을 함의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밝히면서 성장소설의 갈래적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소나기>에서는 자아의 순수성과의 만남, 그리고 성장과정의 공유, 상징적 장치 해석을 통한 심미적 체험 확대, 죽음의 인식 등의 성장소설적 요소를 정리하였다.

전소연¹¹⁾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성장소설들의 문제점을 살피고 성장소설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소나기>가 어떤 점에서 성장소설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와 성장소설이라고 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소나기>는 성장소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학습활동의 양상은 성장소설의 학습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나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장소설들에 대하여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학습활동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유미숙¹²⁾은 성장소설의 교수·학습 실제 부분에서 <소나기>를 죽음의 인식을 통한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소설의 주된 성숙의 모티브는 이성의 인식과 죽음의 인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며 독자들도 소년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사랑에 대한 인식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교수법의 예시 지도안 작품으로서의 <소나기> 연구를 살펴보자. 김세운¹³⁾은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으로 <소나기>의

10) 고성혜, 「문학 교육으로서의 성장소설 연구」, 단국대 석사, 2007.

11) 전소연,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2007.

12) 유미숙, 「성장소설 연구 : 중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 2007.

13) 김세운,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경희대 석사, 2001.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였는데, <소나기>와 인물이나 정서면에서 비슷한 점이 발견되는 영화 <My girl>과 연관하여 수업을 해 보려는 의도를 보였다. 소설을 학습함에 있어서 기존의 수업은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식이 아닌 낱말 풀이와 소설 원론적인 것들을 암기식으로 학습했었음을 지적한 후, 그러한 기존의 방식들을 지양하고 소설 원론적인 지식들을 영화를 통해 감상하여 실제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이해하도록 했다.

유보경¹⁴⁾은 <소나기>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홉 살 인생』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김현주¹⁵⁾는 수용이론의 핵심 개념이자, 7차 교육과정의 ‘문학의 창작’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빈자리 메우기’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소나기>를 예시 작품으로 다루었다.

넷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단원 및 학습활동 분석의 예시 작품으로서의 <소나기> 연구를 살펴보자. 민영희¹⁶⁾는 6차와 7차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교육을 살펴보았는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6차와 7차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과의 관련성, 적절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본문 내용과 학습 목표,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6차와 7차 교육과정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참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허지혜¹⁷⁾는 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들의 적절성을 단원의 목표, 내용, 수록 방법 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 작품과 단원의 제목 및 학습 목표가 적합한지, 학습활동 내용이 소설 작품의 특성과 적합하게 짜여져 있는지, 소설 작품의 주제와 경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

14) 유보경, 「매체를 활용한 성장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신여대 석사, 2007.

15) 김현주, 「빈자리 메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 석사, 2004.

16) 민영희, 「6,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소설 교육 비교 연구」, 고려대 석사, 2006.

17) 허지혜, 「중학교 소설 교육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 1999.

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숙형¹⁸⁾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 내용의 적절성을 고찰하였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지도하는데 그 작품을 선정한 것이 타당한가를 밝혀내면서, 작품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학습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작품론으로는 주로 성장소설의 측면과 문체 그리고 상징이 언급되었고, 문학교육론으로는 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가 언급되었으며, 그 외 다른 주제의 연구에 예시작품으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작품에 대한 직접적 연구보다는 어떠한 주제의 연구 속에서 예시 작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작가론적 측면에서 볼 때 황순원의 작품 세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소나기>에 대한 연구는 그 비중이 적었다.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은 <소나기>를 작품 자체로 바라보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연구주제의 하위 예시작품으로의 성격이 강했고, 중복된 내용의 연구가 다수라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 소설은 성장소설로만 논의되고, 연구 대상 교과서도 6, 7차에 머무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 연구가 선행 연구의 한계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소나기> 한 작품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측면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어 교과서에 오랜 기간 수록되는 동안의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과정마다 이 소설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정전'이라고 회자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소설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적 가치를 추출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학습활동 문항을 계획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18) 이숙형,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분석」, 고려대 석사, 2000.

3. 연구범위 및 방법

먼저 2-7차 교육과정 중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을 참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이 2-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가 실려 있는 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며 각 교과서의 <소나기>의 수록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소나기>가 어느 대단원에 실렸으며 그 단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소설의 <학습활동>을 문항별로 분석하여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관시킨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으로는 2-7차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정리한 단행본, 교육과정 해설서, 2-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어 수록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이기에 교사용 지도서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한 시기 교육과정의 특징이나 목표가 한 권의 국어책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그 시기의 전체 교육과정을 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보며 지식의 습득 및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교육과정의 목표나 특징이 어느 정도 학습활동 등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였다.

다음으로 <소나기>의 작품론을 다룬 연구와 <소나기>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이 작품의 성장소설적·미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성장소설로서의 <소나기>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소나기>의 성장소설의 측면을 언급하고, 소설의 주인공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부연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적 구성물로서의 <소나기>에서는 간결한 문장과 시적인 표현이 쓰인 예문들과 상징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예문들을 찾아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적 기법들이 전체적으로 서정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을 밝히고, 문학적 심미

성을 고양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나기>가 계속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양상과 이 작품의 특징과 의미 및 교육적 가치를 통하여 현실적·효과적 교육 방안을 계획하여 보고자 한다.

II. <소나기>의 수록 목적과 양상

<소나기>는 2차부터 7차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계속하여 수록된 국민 소설이다. 한 소설이 교과서에 오랜 기간 동안 실렸다는 것은 이 소설을 배우는 중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의미로 작용한다. <소나기>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시기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나기>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수록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소설의 교육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부터 7차까지의 국어 교과서에서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랐다. 이는 '독서활동'을 위한 소설, 가치관의 내면화를 위한 소설, 소설의 구성 요소를 배우기 위한 소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배우기 위한 소설 등으로 나타남에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2차부터 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¹⁹⁾을 참조하여 각 시기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여기에 수록된 <소나기>의 수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소나기>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수록하였는지 분석하여 범주화 시켜 보도록 하겠다.

19)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김예니의 글(「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의 구현 양상」,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과 교육 인적 자원부의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을 참조하였다.

표 1 <각 교육과정의 특징 및 '소나기' 수록 현황>

| 차수 | 교육과정의 특징(국어과) | 학년 | 수록단원 | 학습활동 |
|----|--|-----|-----------|---|
| 2 | 진보주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 강조, 언어생활 강조, 문학은 예술의 심미성 강조 | 3-1 | 독서생활 | 작품의 줄거리 요약하기,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 찾기, 모르는 단어 뜻의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정독한 시간 재어보기 등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 |
| 3 |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가치관 교육 강화, 국민 교육현장의 이념, 국어과의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유지하되 쓰기는 글짓기와 글쓰기로 나누어 서사교육 강화 | 3-1 | 문학 이야기(3) | 주제, 짜임, 줄거리 파악하기, 빠르고 정확하게 목독하는 습관과 기술 습득하기, 상상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기, 소년의 마음 파악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마음처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자는 문항 |
| 4 | 기능 중심의 교육 원리, 언어기능의 신장·강화, 문화 교육의 강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 문학 영역을 독자적 신설 | 3-1 | 소설 | 줄거리·인물의 성격·배경 파악하기, 소녀의 모습 나타낸 말 찾기,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 찾기, 낱말·문장의 의미 및 특성 파악하기 |
| 5 | 학생 중심·과정 중심의 국어 교육관, 언어 사용 기능 강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능력) | 1-2 | 소설과 인물 | 소설의 전체 분위기 파악하기, 소년과 소녀를 드러내는 말들 파악하기, 낱말과 문장의 의미파악하기, 소년과 소녀의 성격 파악하기, 결말 추측하기 |
| 6 | 시대의 변화와 교육관의 변화, 국가 개입의 축소, 도덕성과 창의성 강조 | 1-2 | 소설의 인물 |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구분하기, 소년과 소녀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행동 고르기, 줄거리·배경·주제·파악하기, 외모의 대조 파악하기, 결말 추측하기 |
| 7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를 6영역으로 재구조화, 수준별 교육과정, 창의성과 정보능력 배양에 초점, 열린교육과 수행평가 강조, 통일에 대비한 국어 교육의 강조 | 1-2 | 문학의 아름다움 | 중요한 사건과 그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 변화 파악하기, '소나기' 제목의 상징성 파악하기, 이 소설의 감동과 아름다움 생각하기, 인물의 입장에서 편지쓰기 |

1. 독서 능력의 향상 - 제2차 국어 교과서

4·19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들을 다시 새로운 정권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1963년에 제2차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2차 교육과정은 여전히 미국 진보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 아래 있었고 1차 교육과정보다 생활 중심 교육과 경험 중심 교육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기본 방향은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시하고, 기본적인 언어 습관과 언어 사용 기능을 올바르게 기르는 데 역점을 둔 제1차 교육과정과 유사하였다. 언어생활이 강조된 것에 반해 문학교육은 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수가 적었고, 예술의 심미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문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이 시기부터 황순원의 순수소설인 <소나기>가 처음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소나기>가 수록된 3-1 과정의 교과서 전체의 목차를 살펴보면 '1.의사 발표 / 2.독서 생활 / 3.특별 활동 / 4.창작에의 길 / 5.우리 나라 고전(1)' 인데, 전차 목차에서도 2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강조점인 생활 중심·경험중심과 언어 사용 기능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소나기>는 '독서생활'과 관련된 대단원에 수록되었고, 소단원은 '(1)독서의 방법 (2)소설 읽는 법 (3)독후감을 쓰려면 (4)소나기 (5)큰바위 얼굴' 이다. 이 대단원의 소목차에서도 <소나기>는 완전한 의미의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독서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으로서의 소설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원 소개글을 보면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책은 우리의 벗이요,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진리는 마음의 양식이다. 이 벗과 사귀는 고상한 취미를 기르는 동시에 독서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자.

독서의 의의, 태도, 습관, 책의 선택 등에 관해서 알아보고, 연구, 수양, 오락, 감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법들을 익히어, 독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지식 기능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야 할 것이며, 독후감은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 글에는 '소설'의 이론이나 감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책의 가치와 독서의 방법(소설 감상의 방법)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기 교육과정의 특징처럼 기본적인 언어 습관과 언어 사용 기능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독서 능력의 향상을 위해 <소나기>와 <큰바위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익힘문제>를 살펴보면 이 단원의 목표를 알 수 있다.

<익힘문제>

1.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여 말해 보라.
2.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품이 잘 나타난 곳을 찾아서 따로 적어 보라.
3. 이 글에 나타난 어린이나 어른의 생각이나 느낌과 행동을 주의하여 읽어 보라.
4. 잘 모를 말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그 말이 쓰인 부분을 여러 번 거듭 읽어서 전후의 관계나 문맥으로 그 뜻을 짐작하도록 하여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5. 이 글을, 뜻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읽어서 끝까지 다 읽은 시간을 재어 보라.
6. 이 글의 주제, 즉 이 글에서 지은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보자.

<익힘문제> 중 1, 2, 3, 6번 문제는 작품의 줄거리 요약, 인물의 성격과 주제 파악의 문제로 이 소설을 학습한 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이다. <소나기>의 전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이 소설을 다 읽고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기본적인 내용에 머무르고, 소설을 읽은 후의 감상에 관련된 활동은 중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4, 5번 문제는 이 단원의 중심 활동인 '독서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4번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를 스스로 사전을 찾음으로써 파악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쓰인 부분을 거듭 읽어보면서 문맥으로 단어의 뜻을 짐작하여 파악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보이고, 언어 기능 향상이라는 2차 교육과정의 측면과 잘 부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번 문제는 소설 읽기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편의 소설을 정독하고 시간을 재어 보는 활동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별도로 교육시키지 않지만 소설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읽기 태도나 능력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반성과 점검을 통해 독서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2차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목적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에 이 소설이 국어 교과서에 실린 취지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지라도 2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치관 교육 강화 - 제3차 국어 교과서

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학문 중심 교육 원리의 도입과 가치관 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그에 따라 국어과 교육의 일반 목표는 언어생활, 개인 생활, 사고와 정서, 국어 문화의 네 차원에서 '건실한 국민'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과 관련하여 잘 나타나는데, 언어 사용을 통해서 사고를 계발하고 가치관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고력, 정서 순화, 자주성, 개척 정신, 봉사·협동 정신, 민족 주체성, 국가관 등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국어과 교육의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국어과의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사분하는 방법은 유지하되, 쓰기를 다시 글짓기와 글쓰기로 나누어 서사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의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가 수록된 3-1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교과서의 전체 목차는 '새로운 신념 / 이 한 마음 / 생각하는 시간 / 끝없는 만남 / 문학이야기(3)인데, 목차에서도 3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차 교과서에서는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국어 교과서에서도 국어사용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과서에서는 가치관 교육을 중시하여 당시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추상적인 주제로 대단원이 설정되었고, 소단원을 통해서 주지하는 바를 강조하였다.

또한,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3차 교육과정부터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에 관한 내용을 국어교육의 내용요소로 서서히 함께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소나기>가 수록된 '문학이야기(3)'의 대단원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단원의 소단원은 '(1) 국문학 이야기 (2) 시 (3) 외숙모님의 연설 (4) 소나기'이고, <소나기>는 역시 전문이 수록되었다.

2차 교과서에 있었던 대단원 소개의 글이 3차 교과서에는 없다.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에 어떤 단원이 실린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소개되어야 하고, 특히 3차 교과서는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 단원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대단원의 소개글이나 학습목표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은 대단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을 수 있고, 소단원의 학습에 있어서도 그 이해도가 과편화를 보일 수도 있기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소설 학습을 끝내고 풀어보는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면 역시 3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를 찾아볼 수 있다.

<공부할 문제>

- 1-1. 이 소설의 주제를 알아보자.
- 1-2. 이 소설의 짜임과 줄거리를 알아보자.
- 1-3. 빠르고 정확하게 묵독하는 습관과 기술을 가지도록 힘쓰자.
- 1-4. 우리도 상상한 이야기를 글(소설)로 써보자.

- 2-1. 다음에 나타난 소년의 마음을 말해 보자.
 - (가)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 (나)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 디뎠다.

- 3-1. 소년과 소녀 사이에 오고간 마음은 티 하나 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아름다움으로 마음으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도록 하자.

3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작품으로서의 <소나기> 학습은 주제와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인물의 파악 활동은 2차 교과서보다 부족해 보인다. 그리하여 3차 교육과정에서도 <소나기>가 문학작품으로서의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전체적인 가치관 교육 일환으로의 작품 학습으로 보인다.

1-3 문제를 보면 2차 때의 '독서 생활'에서 강조했던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4 문제는 3차 교육과정에서 '쓰기'를 '글짓기'와 '글씨 쓰기'로 나누고 서사교육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본격적인 창작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활동에서 '글짓기'를 새롭게 중요시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육과정과 가장 잘 부합하는 3-1 문제를 보면 이 교과서가 도덕 교과서처럼 여겨진다. 소년과 소녀 사이에 오고 간 마음이 티 하나도 없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직접 제시해 주고 이러한 마음을 학생들

도 갖게 하여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학 교육의 목표를 가치나 감동의 내면화라고 할 때, 이 문제는 문학 작품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우러난 것이 아닌 교과서에 의도적으로 명시된 내면화 과정이므로 완전한 내면화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내면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문학 작품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예술적 심미성을 강조한 문학 교육 양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3차 국어 교과서의 <소나기> 수록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장기 집권을 위한 국민 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국어 교과서를 재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성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꼭 문학성이 뛰어나야만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교과서 문학이 자리잡혀 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교육과정이었다.

3. 인물에 대한 교육 - 제4, 5, 6차 국어 교과서

대통령 암살 이후, 12·12사태를 통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격랑 끝에 제4차 교육과정이 1981년에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표방한 가치관 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기능 중심의 교육 원리를 도입하되, 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육과정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기능의 신장·강화, 문화 교육의 강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특히 국어과의 목표를 표현·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국어과 고유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1차 이후 언어 구사 능력을 강조했던 교육과정과 다르게 4차 교육과정에는 문학 영역을 독자적으로 신설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 시기의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가 수록된 3-1 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체 목차는 '1.전기 / 2.수필 / 3.설명문 / 4.소설 / 5.논설문과 연설문 / 6.희곡 / 7.시 / 8.기행문 / 9.일기와 편지 / 10.국문학' 인데, 국어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가치관 중심의 교육보다는 '문학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국어과가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문학'이 처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소나기>는 '소설'이라는 대단원에 소설 갈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고향의 꿈>과 소단원으로 수록되었다. 단원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이전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문학(소설) 고유의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설의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설의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이 된다. 소설에서, 배경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소설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소설을 흔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과 '어떻게'는 '누가'를 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어 보면, 인물들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인물들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직접 말로 해설하기도 하고,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보여 줌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의 구성요소인 '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경에 대한 내용과, 소설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학작품으로서의 <소나기> 학습과 잘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소나기>에서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소년과 소녀의 행동으로 그들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놓아서 배경과

인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잘 부합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작품이라도 어떤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달라질 터인데, 이 교과서에서는 '인물'과 '배경'이라는 소설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삼기 때문에 <소나기>의 학습을 좀 더 문학 이론적인 접근을 하게 하여 문학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공부할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공부할 문제>

1. 분위기를 살려 이 소설(소나기)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해 보자.
 - (1) 이 소설의 줄거리를 말해 보자.
 - (2) 이 소설 속의 소녀와 소년의 성격을 말해 보자.
 - (3)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

2. 다음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이 소설에서 소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말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 (2) 이 소설에서 시골 정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 (3) 이 소설에 자주 나오는 '바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 (4)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 (5) 이 소설에 쓰인 문장의 특성을 알아보자.

3. 사전에서 '소나기'의 뜻을 찾아보고,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왜 '소나기'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자.

4. 소설의 감동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서로 발표해 보자.

5. 다음 한자를 익히자.
曾 孫 農

학생들은 1번 문제를 해결하며 이 소설의 기본내용 학습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풀기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2.(1),(2) 문제도 1번 문제의 연장선상인데, 소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말을 찾는 것은 인물의 간접 제시를 파악하는 활동이고, 시골 정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를 찾는 것은 공간적 배경의 파악하는 활동인 것이다. 작은 두 문항이지만 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수행했는지, 즉 <소나기>의 인물과 배경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확인학습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단원 소개글에서 언급되었던 인물이나 배경이 사건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구성이 아쉽다.

문학작품으로서 이 소설을 이해할 때에 간결한 문체와 상징적 표현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므로 2.(5)와 3번 문제는 적절한 물음이라고 생각된다. 4번 문제는 4차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도 국어교육의 하나로 보고 있는 관점이 드러난 물음이다. 문학작품을 감상한 후에 소설이 주는 감동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하게 하는데, 이것은 문학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과 내면화에 관련된 활동이다. <소나기>에서 느낀 감동을 학생들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고 그 경험을 발표해 보며 문학작품이 주는 감동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3차 교과서 공부할 문제에서는 가치관의 내면화가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하였는데, 4차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말하게 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문학적 감동을 좀 더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번 문제는 한자를 익히는 문제인데,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기능 중심의 교육 원리를 도입하고, 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육과정을 추구함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본 한자를 익혀서 실생활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4차 교육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교육을 국어교육에 포함시키

고 <소나기>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파악하게 하여 이 소설의 기본내용 학습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의 학습에도 도움을 주는 양상으로 수록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항쟁과 6·29 선언 등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정신을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7년에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일반 원리로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국어 교육관을 도입하고, 교수·학습 상황의 주체를 학습자로 보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였다. 국어사용 능력, 사전 지식, 문식성(literacy) 등의 개념은 이 때 정착된 것이다. 또 제4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로 묶였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시 세분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언어 기능의 신장은 동시에 매체를 다루는 능력의 신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이 4차와 다르게 변화된 시대상으로 정보화 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는 국민 형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4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5차 교육과정 역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가 수록된 1-2 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전체 목차는 '1.사실과 의견 / 2.전달과 주장 / 3.개요 작성하기 / 4.문장의 종결 / 5.문학 이야기 / 6.소설과 인물 / 7.판단하며 읽기 / 8.이야기 만들기 / 9.문단쓰기 / 10.말의 소리 / 11.시의 종류 / 12.설명과 묘사 / 13.글다듬기 / 14.희곡과 연극 / 15.상상하며 읽기' 이고 이 중 '6.소설과 인물' 에 <소나기>가 <나비>와 함께 실렸다. 교과서의 차례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서 많아지고 세분화 되었으며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의 측면에서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차례로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문학과 문학 그리고 문법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 차례로 실렸다. 이는 당시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식 그 자체보다는 이해와 표현 사이의 정신적 활동에 집중하면서 지식의 활용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어과 교육이 보다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소나기>가 이전 교육과정들과는 다르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소설 속 세상을 체험함에 있어서 공감도를 높이려면 같은 또래의 인물이 적당할 것이기 때문인 듯하다. 성장소설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로 옮겨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나기>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인물'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역시 '6.소설과 인물'의 소단원으로 수록되었다. 이전 교과서까지는 단원을 소개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목이 없었으나 5차 교과서부터는 <단원의 길잡이>라는 편집 체제가 만들어졌다. 또한 <학습활동>과 <단원의 마무리>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편집 체제나 위에서 보았던 목차를 보았을 때 이전 교과서에 비해서 체계가 잡힌 듯하고, 내용도 풍성해졌다.

이 단원의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소설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물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4차 교과서와 같지만, 이번에는 1학년 교과서에 수록 되어서 인지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한 예를 들어 상세하게 하고 있다.

<단원의 길잡이>

홍부, 놀부, 심청, 백설 공주, 톱 소녀, …… 이들은 모두 우리가 읽었던 작품 속에서 만난 인물들이다.

우리는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의 이름은 잊을 때가 있어도 재미있게 읽은 작품 속에서 만났던 인물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인물들은 실제로 사귀었던 친구처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도 한

다. ……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들은 상상의 인물이면서, 실제의 인물 못지 않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소설은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인물의 예시가 흥부, 놀부, 심청, 백설 공주, 톰 소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친숙해 할 만한 인물들이다. 또한 이전 교과서에는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 이론적인 내용인 인물의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번 교과서는 학생들과 비슷한 인물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자.

<학습활동>

1. '소나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소설에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가?
- (2) 소년은 시골 소년으로, 소녀는 도시 소녀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알려 주는 부분들은 어디인가?
- (3) 이 소설에 자주 나오는 '바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 (4)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는 무슨 뜻일까?
- (5) 소년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두 가지만 고르고, 이를 근거로 소년의 성격을 말해보자.

① 행동 : (가)

(나)

② 성격 :

2. 다음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자.

- (1) 소녀의 유언 없이 소설이 끝났다면, 감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 (2) 이 소설의 다음 부분을 이어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좋을까?

이전의 교과서들은 <소나기>를 학습한 후에 주제나 줄거리 파악을 기본적으로 중시했다. 그러나 내용·형식면에서 좀 더 체계가 잡힌 5차 교과서에는 주제나 줄거리 파악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은 제외하고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인물을 드러내는 요소, 인물 성격의 간접적 제시를 파악하는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5차 교육과정은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상황의 주체를 학습자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학습활동의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이 4차 교과서에는 낱말을 찾아내는 활동이었으나, 5차 교과서에는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을 찾고, 학생들이 직접 소년과 소녀의 성격을 말해보게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보면 교수·학습 상황의 주체가 학습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번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학습이 내용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의 생략된 결말이나 감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여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5차 교과서부터 <단원의 마무리>가 새로 추가 되었다.

<단원의 마무리>

1.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 '나비'의 나와 예밀은 성격상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인물로 그려져 있다. 만약에 서로 비슷한 성격의 인물만 나온다면, 소설의 재미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3. 지금까지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한 사람을 고르고, 그 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발표해 보자.
 - (1) 누구인가?
 - (2) 어떤 인물인가?
 - (3) 왜 인상적인가?
 - (4) 그와 비슷한 실제 인물을 본 적이 있는가?
 - (5)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의 여부와 단원 학습의 중점 사항, 즉

'인물'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대단원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를 수행함으로써 단원 차원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설을 자신들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시하였고, 이전의 교과서들보다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일관성이 있는 양상으로 교과서가 재편되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발표되었는데, 시대의 변화와 교육관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개입의 축소라는 굵직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구성의 기본 방침에서 제6차 교육과정의 강조점은 도덕성과 창의성에 있다. 이는 이전 시기와 현재를 구분해주는 준거이면서 세상의 변화는 곧 개혁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는데, 김영삼 정권은 도덕성과 민주성의 강조를 통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나 애초 제6차 교육과정이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 교육에는 아직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은 너무 '교육적'이고 '설명적'인 목적의 글이 위주이며, 문학작품의 경우 많은 작품이 이전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이 시기의 국어 교과서 중 <소나기>가 수록된 1-2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목차는 '1.효과적으로 말하기 / 2.상상하며 읽기 / 3.시의 화자 / 4.문단 쓰기 / 5.소설의 인물 / 6.단어의 갈래 / 7.사실과 의견 / 8.글다듬기 / 9.설명과 묘사 / 10.바르게 듣기' 인데, 차례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의 6영역이 비교적 균등하게 자리 잡고 있고, 언어 사용에 관한 본질 및 원리 학습을 중시한 것의 일환으로 문법에 관한 비중이 크다.

<소나기>는 역시 5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학년 2학기에 수록되었고,

'5.소설의 인물'의 소단원으로 <공양미 삼백 석>과 함께 수록되었다. 4, 5차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인물'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만큼 <소나기>는 소설 구성의 주요 요소인 '인물'의 교육에 효과적인 작품인 것이다.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소설에서의 인물에 대한 이해는 삶의 총체적 체험을 목표로 하는 소설 교육에서 중요시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소나기>가 30여년 동안 교과서에 실리면서 대부분이 소설의 '인물'에 초점을 둔 단원의 소단원으로 수록된 것인데, 이는 <소나기>의 제한된 학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나기>가 소설의 '인물'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소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되면서 '교과서 문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설을 한 방향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나기>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대단원에 담으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나기>를 소설의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학의 아름다움' 속에서 <소나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 된다.

<단원의 길잡이>는 5차 교과서보다 좀 더 세련되고 상세하게 다듬어졌고, 소설의 '인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한다.

<단원의 길잡이>

우리는 소설 속에서 많은 인물과 만나게 된다. ... 이와 같이, 여러 인물들이 활동하며 사건을 벌여 나가는 이야기를 상상하여 꾸며 쓴 것이 소설이다. 한 마디로 말해 소설은 인물들의 이야기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 주변의 인물과 닮은 점이 많다. ... 작가는 꾸며 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들이 예사로 알고 지나치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물음을 던지도록 해 주기도 한다.

소설의 인물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과, 이야기의 진행을 도와주는 주

변 인물이 있다. …

소설의 등장 인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춘향과 이몽룡만 있고 다른 인물들이 없다면, 이야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이처럼, 소설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대결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소설은 있었던 일, 있는 일, 있음직한 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이야기로서, 참되고 진실된 삶의 세계를 전달한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인물과 맞대어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폭 넓고 풍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5차 교과서와 <소나기> 수록의 초점은 같지만, 5차 교과서에 비해 인물의 예시가 좀 더 풍부해졌고, 다양한 인물의 유형, 인물의 역할, 인물을 학습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로운 점 등을 소개하여 이전의 교과서보다 소설의 '인물'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소나기>에서 인물의 요소를 확인하는 문제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학습활동>

1. '소나기'를 읽고, 소설의 인물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구별하여 보자.
- (2) 소년과 소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각각 두 가지씩 고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인물의 성격을 말해보자.

2. '소나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작품의 줄거리를 말해 보자.
- (2) 이 작품의 배경을 알아보자.
- (3) 소년과 소녀의 외모가 대조적으로 표현된 곳을 찾아보자.
- (4) 소년이 소녀보다 성숙하게 행동하는 장면을 찾아보자.
- (5)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보자.

3. 다음에 대하여 더 공부해 보자.

- (1) 소녀의 유언 없이 소설이 끝났다면, 감동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 소녀가 죽지 않고 이사 가게 되었다면, 이사 가는 날 소년과 소녀가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까?
- (3) 이 소설의 다음 부분을 이어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좋을까?

이전의 교과서들에서 제시하였던 문제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1번 문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작품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또한 각 인물의 성격을 찾아보게 하는 과정에서 성격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데, 사건의 전개 과정과 성격 변모 과정을 대응시켜 인물의 성격 변모가 주는 느낌을 생각해 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문제이다. 2번 문제는 소설 이해의 주요 사항에 대한 문제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소나기>의 줄거리와 주제, 배경과 인물에 대한 것, 결말부의 감동, 뒷이야기 이어쓰기 등 <소나기>를 배우면서 '인물'에만 치우칠 수 있는 편협함을 <학습활동>의 다양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듯하다. 또한, 문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재미에만 내맡겨 수동적으로 <소나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나기>를 읽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단원의 초점이 소설의 '인물'이기에 <단원의 마무리>도 5차 교과서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소나기>가 교과서에서 '인물'을 중점으로만 실린 것에 대해서 최시환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성격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개성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등의 복합이며, 그 모두의 혹은 주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적절히 형상화되고 또 파악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회적 맥락이 인물의 형상화나 그가 하는 행동의 의미 형성에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다. 작품이 그러하므로 이 단원의 학습활동도 인물의 성격을 행동과 외모에만 의존하여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나기>는 인물 지도의 자료로 걸맞은 작품이라 하기 어렵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소나기, 징검다리가 있는 개울가, 가을 들판, 분홍 스웨터 등의 공간적 요소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 보다는 사건 혹은 구성 단위이나 공간적 배경 단위에 실는 게 적합할 듯하다.²⁰⁾

4차와 5차 교과서에서 계속하여 ‘인물’ 요소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수록된 것과는 달리 이 소설이 인물의 단원에 수록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외모나 행동으로 인물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6차 교과서에서도 인물 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일침을 놓는 의견이다. 이에 바람직한 변화로서 <소나기>가 7차 교과서에서는 ‘인물’ 요소에서 벗어나 ‘인물’도 포괄할 수 있는 ‘문학의 아름다움’으로 수록된다.

이와 같이 6차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정책에 여러 변화를 시도하였고, 교과서에도 목차와 활동의 다양함으로 잘 드러났으나 교과서는 아직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여 ‘교육적’이고 ‘설명적’인 목적의 논설문과 설명문 위주와 문학작품의 경우 <소나기>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이 이전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4. 문학의 아름다움 향유 - 제7차 국어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발표되었다. 21세기를 위한 교육 개혁의 요구를 반영한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전까지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1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0) 최시한,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단원 검토」,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5, p.169.

을 설정하였다. 또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 지식·문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을 더욱 상세히 제시하였다. 특히 심화·보충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는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탈피하여 작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드러난다. 민족성을 강조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식민지 시대의 시들은 많이 줄어든 반면, 다양한 주제의 최근 시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 TV로 방영되었던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오정희, 박완서 같은 여성 소설가들의 소설이 실리고 있다는 점은 교과서 내 문학작품의 범위가 폭넓어졌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성 문인의 작품 외에 비전문가가 쓴 글이나 학생들의 작품이 읽기 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글을 써 볼 것을 요구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창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는 1-2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체 목차는 '1.능동적으로 읽기 / 2.문학의 아름다움 / 3.판단하며 읽기 / 4.시의 세계 / 5.글의 짜임 / 6.문학과 독자' 인데, 전체 목차를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듣기와 말하기는 생활 국어로 분리됨) 영역별로 문학과 비문학 작품과 잘 연결되어 수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나기>는 역시 1학년 2학기에 수록되었고, 대단원 '2.문학의 아름다움'의 소단원으로 다른 갈래의 작품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그 동안 <소나기>가 줄곧 소설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수록되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소나기> 학습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를 살펴보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알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언어를 갖고 닦아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시를 읽고, 이 시에 쓰이고 있는 말이 일상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자.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이 시를 읽어 보면, 문학에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나온 말들이 모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렇게 볼 때,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되, 일상 언어를 좀더 세련되게 다듬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학의 아름다움은 독자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주고 문학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학에는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들어 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공의 슬픈 운명에 눈물을 흐리기도 하고, 주인공의 성공에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 요컨대, 문학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이란, 독자가 감동을 받고,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기, 문학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기, 즉 문학적 정서의 체험 등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전의 교과서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인물'이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인물'은 소설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소나기>의 본문을 배우며 이야기되어질 것이므로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일까?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생들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자가 감동을 받고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는데,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학생들마다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교과서의 학습의 방향은 같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교과서에서 정의한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7차 교과서부터 학습활동의 구성이 문제의 단순 나열이 아닌 난이도나 중요성에 따라 '내용학습 / 목표학습 / 적용 학습'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도 문학 작품의 단계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활동>

- 내용학습 : 이 소설의 중요한 사건을 찾아보고, 그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써 보자.
- 목표학습 : '소나기'를 읽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소나기'라는 단어가 소설 제목으로 쓰였을 때와 일기 예보에서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2.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적어 보자. 그리고 문학적 아름다움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적용학습 : 소나기를 맞고 돌아온 뒤부터 앓게 된 소녀는 소년을 만날 수 없었다. 그동안 소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고, 소녀의 처지에서 소년에게 편지를 써 보자.

6차의 교과서에 비해 <학습활동>이 비교적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다. <소나기>의 기본 내용 학습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단원의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활동만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내용학습이나 목표학습의 문제 난이도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단어나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건을 찾고 그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쓰는 활동은 소설의 총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목표학습의 2번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앞서 <단원의 길잡이>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학생들에게는 감이 잘 오지 않는 내용일 터인데 <학습활동>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답하기 쉽게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어 질문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는 '문학의 아름다움'이 문학적 정서의 체험으로 제시되었지만, 학생들은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용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 속 인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문학의 아름다움이 곧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활동은 목표와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은 '국어' 교과서에 대한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작가와 작품 그리고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에 대한 다양성의 제고로 교과서가 한결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소나기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소나기>가 실린 대단원이나 교과서 학습활동을 통하여 이 소설이 수록된 양상이 매 국어과 교육과정마다 조금씩 바뀌는 특징을 잘 반영했음을 확인하였고, 교과서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점과 부족한 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으로 <소나기>는 2차 국어 교과서부터 7차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었고,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수록 목적과 양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이 소설의 구체적인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내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소나기>가 교육적 가치가 매 시기의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 활동을 가지고 수록되었음을 파악한 것에 의의를 둔다. 다음으로는 <소나기>의 작품을 분석하여 특징과 의미를 밝히며, 그 속에서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III. <소나기>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소나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내용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성장소설로서의 면모이고 후자는 미학적 특징인 간결한 문체와 상징적 표현의 면모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소나기> 작품을 내용적·표현적 측면으로 분석할 것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나기>의 성장소설과 미학적 표현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추출해 볼 것이다.

1. 성장소설로서의 <소나기>

황순원은 스스로 "나만큼 아이들 이야기를 쓴 사람도 드물게다. 아이들 이야기를 쓸 때는 언제나 즐겁다.²¹⁾ 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을 즐겨 등장시키고 있다. 그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는 이유는 대립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혼탁한 현실 세계를 치유할 대안을 아이들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나기>도 아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황순원이 피란 중에 쓴 것인데, 전쟁의 상처와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쓰게 된 작품이라고²²⁾ 한다. 황순원의 소설에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소설이 많이 있는데, 이

21) 황순원, 『황순원 전집2』, 문학과 지성사, 1985, p.252.

러한 소설들은 대부분 미성숙한 자의식을 갖고 있던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소년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소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나기>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에 실릴 수 있던 큰 이유도 이 소설이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장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장소설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소년(소녀)가 성숙하고 완전한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기까지 겪은 정서적 아픔과 정신적 성장, 현실의 인식의 과정을 주로 다루는 소설²³⁾을 지칭한다. 성장소설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의 주인공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한 장르이고, 주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충격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행복한 유년의 세계에서 벗어나 복잡한 성인 세계의 문턱에 들어선 청소년이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장르가 바로 성장소설인 것이다.²⁴⁾

(1) 이성과 죽음의 인식

유년기 아동의 성장의 과정에서 삶의 어떠한 요소보다 먼저 인식되는 것은 이성의 존재이다. 이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소나기>에서도 미성숙한 주인공인 소년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는 소녀를 만나고 차츰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소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소녀와 산행을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고 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인식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그 후 소녀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소녀를 만났을 때 소녀네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하게 된다. 소년이 소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 주

22) 황순원, 「말과 삶의 자유 II」 『현대문학』, 1986, 5. p.60.

23) 고성혜, 「문학 교육으로서의 성장소설 연구」 단국대 석사, 2007, p.19.

24) 박영식,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소나기> 분석」, 『어문학』 제102집, 한국어문학회. p.435.

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소녀의 죽음이 찾아왔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을 겪은 후에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소나기>는 미성숙한 소년이 중대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아픔을 겪고 성장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장소설의 구조적 특성은 미성숙과 성숙의 이항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소나기>도 소년이 소녀를 만나기 전의 세계인 미성숙의 세계와 소녀를 만나고 난 후의 성숙의 세계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성숙의 세계는 유년기의 동성적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성적 세계에 속하는 소년이 개울가에서 소녀를 만남으로써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성적 세계로 나아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년은 미성숙의 세계에서 성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소나기>의 이항대립의 구조에 관하여 남미영²⁵⁾은 이 작품이 비밀의 공유과정을 플롯으로 하며 작품에 부여하는 질서가 순진과 경험의 이항대립의 구조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 내적으로는 공간적 배경인 일상의 장소와 징검다리 저쪽의 모험과 미지의 세계를 또 구조화 시키고, 작품 외적으로는 소년이 순진 세계에서 경험 세계로 돌입함으로써 성인세계로 입사(入社)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장소설의 서사적 구조는 주로 탐색담, 여로형 구조, 통과제의의 구조를 주로 가지는데, <소나기>도 미성숙한 주인공이 소중한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른 슬픔의 경험이라는 통과제의를 거쳐 성인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통과제의란 인류학적 용어로서, 유년이나 사춘기의 주인공이 고통의 체험 — 육체적인 시련과 고통, 신체 어느 한 부분의 제거, 금기와 집단적인 신념에 대한 일련의 고통스런 체험 — 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성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재편입하게 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소녀의 죽음은 소년으로 하여금 아이들의 세계

25)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 1992., pp.35-37.

뒤에 감추어진 세계의 비밀을 엿보게 함으로써,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성숙의 계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통과제의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과제의적 사건을 겪어 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소년과 소녀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성장의 단계에서 겪는 정서적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인공과 같이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자아

성장소설은 학생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기 또래의 인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즉 일상적 사건이나 갈등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중 인물의 삶과 행동에 감정이입을 하여 공감하거나 또는 부정하여 자신은 물론 나아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소설의 교육은 가치 및 주제의 내면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내면화'란 하나의 현상을 학습자가 내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작용 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성장소설에서는 이 내면화의 과정이 주로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성장소설 속에 구현된 성장의 과정은 간접 경험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 자아 확립의 시기에 필요한 주요 가치들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들을 내면화하여 학습자는 스스로 고민하고 삶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므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탐구하기에 적절한 장르가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나기>도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인다. 이 소설에 등

장하는 소년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데 이 소설을 배우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니 나이로 보자면 비슷한 또래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여 모든 체험을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또래로서의 생각은 공유할 수 있을 것이기에 성장소설인 <소나기>에서 주인공 의식의 성장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인공과 함께 의식이 성장하는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소년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소녀를 만나서 이성을 인식하게 되고,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매우 커졌을 때 소녀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소년의 변하는 심리를 공감할 수 있고, 모든 현실이 행복한 결말로만 귀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아픔을 겪고 나면 슬픔을 몰랐던 시절의 자신은 어리게 보이고 마치 성숙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므로 주인공과 함께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된다. 아울러 이 소설에서는 소녀의 죽음이 암시적으로 알려지면서 끝이 났지만 소설을 다 읽은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이고, 앞으로의 소년의 행동 또한 예측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예측 속에서 한결 성숙한 모습의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소나기>를 읽으며 주인공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며 성숙의 과정을 같이 밟아 나간다. 어떤 방향이든 성숙이라는 것은 유년기에 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소설을 통해 성숙 또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소설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소설이 이토록 교과서에 오래 수록된 가장 큰 이유가 성장소설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2. 미적 구성물로서의 <소나기>

황순원의 문학 활동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시를 썼고, 두 권의 시집을 받

표한 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시를 지었기에 그의 소설에서도 서정적 분위기와 시적 표현 그리고 간결한 문체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특히 <소나기>에서는 이러한 황순원 문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물이나 상황과 어우러져 서정적 소설로서의 문학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작품의 내용이나 교훈에 대한 감동이나 정서적 감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간결한 문체나 상징적 표현으로 대표되는 미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간결한 문체와 시적 표현

천이두²⁶⁾는 황순원 문체가 면밀하고 세련된 지적 조작으로 인해 문장이 극도로 간결하고, 사실적인 세부묘사를 외면하며 표현대상의 특징적인 일면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이러한 문장에는 소박하고 아련한 서정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황순원 문체의 양면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양면성은 황순원이 엄격한 지적 절제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적 자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찬제²⁷⁾는 그의 글에서 황순원 소설 언어의 경제성을 언급 했는데, 짧고 정제된 문장에 정서는 정서대로 정보는 정보대로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황순원 소설의 문체는 다른 작가의 그것보다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소나기>에서 간결한 문장, 단적인 이미지의 포착,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장면 묘사 등으로 드러났다. 소설의 구체적 예문과 함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

26) 천이두, 위의 글, p.289.

27) 우찬제, 「<말무늬> · <숨결> · <글틀>-황순원 소설의 문체 분석을 위한 발견적 독서」, 『작가세계』, 1995 봄, p.114.

자.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을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찌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개울가에서 소녀를 만난 후 다시금 소녀가 보이지 않자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던 소년이 물에 비친 자신의 검은 얼굴을 보고 물을 움킨다. 도시에 살던 소녀와 자신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의 치기 어린 행동이 그만 소녀에게 들키고 부끄러운 소년은 내달려 도망친다. 소년의 행위와 내면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장황한 설명보다도 위와 같은 특징적 장면, 특징적 이미지만을 제시한 수법은 수많은 공백을 비워 놓고 그 공백을 여운으로 채워 넣는다. 또한, 메밀꽃 내가 찌릿하여 코를 찌른다고 생각하는 것,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든다는 표현을 통해서 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미지, 즉 후각과 미각의 심상을 느낄 수 있는데, 절박한 상황에서의 소년의 마음이 생생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밭을 뽑아왔다. 아직 밭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밭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러.”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이는 소년과 소녀가 산행을 가서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아직 덜 자란 무 뿌리를 뽑아 먹어 보는 장면의 묘사이다. 소년은 무 두 밑을 뽑아 와 먹는 법을 소녀에게 시범 보인다. 즉, 소년은 모처럼 소녀에게 우쭐거릴 일이 하나 생겼고, 또한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소녀에게 알려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가 맵고 지려서 못 먹겠다고 하자 소년은 쑥스럽기도 하여서 더 멀리 팽개쳤는데,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라는 문장 두 줄로써 소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의 정서가 압축되어 간결한 문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작가의 추상적 진술 없이 소년과 소녀의 행동으로만 상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는 황순원 문체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또한 소년과 소녀의 마음은 주로 서술자에 의해서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끼도록 작용한다.²⁸⁾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날부터 좀더 늦게 깨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은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자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이 조약돌을 주무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독자들로 하여금 소년의 마음을 보다 순수하게 느끼도록

28) 조구호, 「성장의 소나기」, 『소설의 분석과 이해』, 정림사, 2004, p.65.

한다. 이러한 마음을 전달받은 독자들은 후에 소년이 소녀를 위해 호두를 따고, 얼룩 수탉을 가져갈 것을 권하였으나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소년의 마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더욱 안타까워할 것이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쥐고 등을 굽어주는 척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꺾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아닌, 단적인 이미지의 포착을 통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문체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송아지 위에 올라타서 본 소녀의 모습은 사실주의적 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포착된 시각적 영상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사실주의적으로 묘사를 했을 때보다 더 현재 상황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소년의 심리까지도 잘 연결되어 독자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얻는다.

다음의 예를 더 살펴보자.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 어가는 것만 같았다. /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성스럽게 건넌다. /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졌다. / 쇠파리라도 잡는 척….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면 묘사가 선명하게 이루어져서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장면 장면이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다.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서 서술자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은 소년의 심리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화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회화적 성격은 시에서 주로 표현

되는 '이미지' 즉 '심상'과 상통하며 이로 인해 이 소설은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또한, 간결한 문체를 살리고 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하기도 한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 뿐.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이렇게 문장에서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시에서와 같은 끝맺음의 느낌을 받게 하고, 설명을 자제하는 의도로써 독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독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소녀의 죽음이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에서도 단편 소설의 미학으로 여운이 느껴지게 하는 작가의 지적 절제가 보인다.

"글세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봤다드군. 지금 같에서는 윤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든 옷을 꼭 그대 루 입혀서 물어달라구...."

그러나 이 소설이 초기에 <소녀>라는 제목으로 발표 되었을 때는 어른들의 대화 다음에 네 문장이 추가돼 있었다고 한다.

"아마 어린 것이라두 지안 풀이 안될 걸 알구 그랬든가 부지요?"

끄응! 소년이 자리에서 저도 모를 신음 소리를 지르며 돌아누웠다.

"제가 여적 안 자나?"

"아니, 벌써 아까 잠들었어요. ... 예, 잠꼬대 말구 자라!"

이 네 문장으로 인해 독자들은 소녀의 죽음에 대한 소년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소년의 반응을 상상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제시되었던 황순원 문체의 특징과는 다르게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수정본에서는 네 문장이 빠졌고, 이로 인해 독자들은 단편 소설의 미학, 즉 여운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나기>에는 황순원의 문체적 특징이 잘 드러났고, 그것들이 간결한 문장, 단적인 이미지의 포착,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장면묘사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문체의 특징은 이 소설 전반에서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2) 상징과 의미

간결한 문체와 함께 <소나기>의 문학성에 기여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다. 이 작품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비극적인 결말 유형을 취하는데, 이러한 비극적 인식에 다다르기까지 작품의 곳곳에는 상징적 장치들이 놓여 있다. 독자들은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가을'의 상징이다.

-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땀다. 널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 낮에 봐 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 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을은 만물이 성숙하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온갖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어서 떨어지는 계절이고, 단풍잎이 지는 계절이므로 소멸의 이미지를 갖는다. 초가을에서 시작되어 늦은 가을에 끝나는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에서도 역시 소멸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의 허수아비도 죽음의 상징이고, 가을의 대추와 호두알도 소년과 소녀가 서로를 생각해 주는 소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상징이다. 그리하여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부터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조약돌의 상징이다.

-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짱팔짱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뻥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소녀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년에게 던진 자연물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두 사람이 교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때의 만남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전반부에서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약돌을 소중히 간수하는 모습과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이 묻어나는 행동으로써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약돌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나타낸 징표이자, 소년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매개물이다.

셋째, 색채가 나타내는 불행의 상징이다.

-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뱀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 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과 소녀의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독수리의 검은 빛은 죽음의 그림자를, 소녀가 좋아하는 보랏빛 도라지꽃과 쏟아지는 소나기의 보랏빛은 비극의 예시를, 파랗게 질린 소녀의 입술빛은 병의 예고를, 도랑의 붉은 흙탕물 빛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상징한다.²⁹⁾ 이렇듯 이 소설의 색채는 소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나기의 상징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상 현상에서의 소나기의 의미와 같이 갑자기 찾아와 짧게 끝나 버린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상징하고, 중심 사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년과 소녀가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결말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는 소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암시한다.

- 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주 떨었다.
-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히었다. 걸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29) 남미영, 위의 글, pp.37-38.

위의 예시는 소나기가 이 작품에서 불행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소년과 소녀가 즐겁게 노는 상황에서 갑자기 먹장구름이 끼고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한 후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러한 소나기의 보랏빛과 같은 이미지로 연상이 되어 우울함 또는 불길함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비를 맞은 소나기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어깨를 자주 떨었다는 것은 소녀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어 역시 소나기가 불길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나기가 꼭 불길한 징조만은 아니다.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둘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는 극적인 장면도 연출되는데 이렇게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가 더욱 친밀하게 하고 애뜻한 감정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검붉은 진흙물의 상징이다.

-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게 들어 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년은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 보고 있었다. "내, 생각해 냈다. 그 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 때, 제 등에서 옴은 물이다." 소년을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이 진흙물은 소나기를 피하였다가 개울을 건널 때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면서 묻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할 수도 있는 진흙물이 든 분홍 스웨터가 시적 상징을 수반하는 것은, 결말에 있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가 죽거든 그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 달라고 했다는 소녀의 유언을 소년이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소년의 체온이 닿은 그 스웨터는 소녀에게 있어서 어떤 영원의 징표로 간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³⁰⁾이고,

이 둘의 사랑이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결이었지만 이러한 소녀의 마음을 알게 된 소년의 안타까운 심정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나기>에는 '상징'이 많이 쓰이는데, 긴 설명은 생략한 채 몇 단어나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소설 전체적으로 서사정보보다는 서정성을 주로 느끼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소설의 해석을 위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심미성을 고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문학적 심미성 고양

<소나기>는 7차 국어 교과서에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대단원 아래에 실려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정의한 문학의 아름다움은 다음과 같다.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눈이나 귀 등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때에 의미가 있다. 즉,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작품의 세계를 독자는 미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는 작품의 미적 가치와 작가의 세계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미적인 세계와 가치관을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가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¹⁾

궁극적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과 정서적 감화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꼭 정서적 감화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뿐만

30) 천이두, 위의 글, p.294.

31)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 교육인적자원부, 2005, p.88.

아니라, 소설의 건조한 문장 속에서 시적인 표현을 발견했을 때나 상징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모두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나기>에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앞에서 이 소설의 간결한 문체와 시적 표현 그리고 상징의 의미를 언급했다. 보통 학생들은 소설을 학습할 때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갈등의 해결 과정을 그려보며, 인물의 성격과 주제 정도만을 파악한다. 적어도 시를 학습할 때처럼 소설 속에서 문장 표현이나 상징의 요소는 눈여겨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나기>는 서사적 특성이 강한 다른 소설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사건은 강한 충격을 주면서, 문장은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더불어 상징적 표현과 서정적 분위기는 이 소설이 아름답다는 감상까지 갖게 한다. 한 문학 작품의 작품성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소나기>의 작품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문학의 정전을 선정한다면 <소나기>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꼽힐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소나기>를 읽으며 소설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문학의 아름다움 - 문학적 감동 및 표현의 아름다움을 모두 포괄한 개념 - 까지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론 I에서 <소나기>가 '교과서 문학'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을 한 편의 온전한 문학작품으로 교과서에 수록할 때에 위와 같은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2차-7차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III. <소나기>의 교수 방법

지금까지 <소나기>가 2차 국어 교과서부터 현재 7차 국어 교과서까지 수록된 이유 즉, 이 작품의 생명력을 분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각 교과서 수록 양상과 작품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학' 과목이 정립된 이후로는 주로 소설의 '인물'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소나기>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고, 7차 교과서에 이르러서야 '인물' 요소에서 벗어나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문학적 감동과 내면화에 중점을 두어 <소나기>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같은 작품이라도 각 교육과정마다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이 여러모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소나기>의 작품론으로 성장소설의 면모와 미적 구성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성장소설로서의 가치는 이 소설을 배우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주인공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미학적 특징으로서의 가치는 소설 속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I장에서 <소나기>의 수록 목적과 양상을 살펴본 결과, 2차 교과서는 독서 활동, 3차 교과서는 가치관의 내면화, 4-6차 교과서는 <소나기>의 '인물'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7차 교과서에서는 <소나기>의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대단원 중 소설의 한 작품으로 수록되었는데,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눈이나 귀 등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닌,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깊이 느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학습활동의 문제도 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의 <소나기> 학습활동만으로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학생 개개인에게 가르치며 내면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작품을 다 읽고 느끼는 '감동'으로 보았는데, 필자는 이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감동적인 표현을 발견하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나기>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³²⁾가 많이 있지만, 교실에서 제한된 수업 시간에 현실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의 <소나기> 교수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소나기>의 교과서 수록 양상을 분석할 때에 주로 학습활동을 살펴보았으므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도 학습활동 문항으로 계획하였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살릴 수 있는 학습활동의 문항들을 추가해 볼 것이다.

32) 김세운은 그의 논문에서 <소나기>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으로 <My girl>과 같이 비교해보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경희대 석사, 2001.)
유미숙은 그의 연구에서 역할극을 활용하여 <소나기>를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장소설 연구 : 중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 2007.)

<학습활동 문항계획>

1. 과거의 국어 교과서에서 <소나기>를 언급하면서 중요시 되었던 '인물' 요소 파악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생들이 인물요소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2. 이 소설이 '성장소설'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으므로 주인공의 의식이 성장할 때 학생들도 함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3. 열린 결말의 구성으로 학생들이 뒷이야기를 자유자재로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³³⁾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제시한다.
4. 문학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소나기>에서 쓰인 문체적 특징과 상징의 파악으로 시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5. 문학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소나기>를 읽은 후에 느껴지는 감동이나 여운에 대하여 써 보게 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33) 상상력은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식적 상상력'은 문학을 통해 세계와 현실을 일식하고 형태화하는 능력을, '조응적 상상력'은 현실에 대한 비판 기능, 문학을 통한 세계와의 상호 조정 작용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초월적 상상력'은 가능한 모델의 창조 기능, 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뜻한다. (구인환,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8, p.68.)

<학습활동 문항>

1. 다음은 소년과 소녀의 행동이나 대화이다. 각 인물의 성격이나 심정을 알 수 있는 번호를 짚지어 보고 어떠한 점을 알 수 있는지 써 보자.

- ①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 ②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 ③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 ④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 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 ⑥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 ⑦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기도 했다.
- ⑧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 ⑨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쥐고 있었다.
- ⑩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 ⑪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리 시작했다.
- ⑫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 ⑬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뺑개쳐 버렸다.
- ⑭ "떨면 얼마나 떨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 ⑮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예시1) ③,⑧ : 소년의 소극적 성격이 드러난다.

(예시2) ⑬,⑮ :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이 드러난다.

2. 다음의 물음에 답해보자.

(1) 내가 주인공 소년이라면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지 써 보자.

① 개울가를 지나가야 하는데, 돌다리 한 가운데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소녀를 만남.

⇨ ()

② 소녀가 조약돌을 던짐.

⇨ ()

③ 집에 심부름이 있으나 소녀가 저 산 너머에 놀러 가자고 함.

⇨ ()

④ 소녀가 다침.

⇨ ()

⑤ 물이 불어났는데 같이 도랑을 건너야 함.

⇨ ()

⑥ 소녀가 스웨터의 흙탕물이 소년에게서 옴은 물이라고 말함.

⇨ ()

⑦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말을 들음.

⇨ ()

⑧ 소녀가 대추를 주어서 소녀를 위해 호두를 따.

⇨ ()

⑨ 소녀가 죽음.

⇨ ()

(2) 나의 삶 속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게 했던 사건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 사건 :

▶ 변화 : 심리의 변화, 인간 관계의 변화, 태도의 변화

3. 다음은 이 소설의 결말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본 것이다. 각 결말에 이어서 소년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 보자.

① 소녀의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잠결이라 무의식에 들어서 반응하지 못하였다.

② 자는 척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으며 소녀의 죽음이 슬프기도 하고 자신만이 아는 비밀들이 있기에 더욱 안타까워서 반응하지 못하였다.

③ 소녀가 죽지 않고, 앓고 있다고 듣는다.

()

4. 다음의 물음에 답해보자.

(1) 다음의 시를 읽고, 이러한 시의 표현 방식이 <소나기>에도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찰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 열이가 착하게 뒹아놓은

유리창 한 장

-정일근, <바다가 보이는 교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접동새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발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도종환, <어떤 마을>

- ⇒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 (단풍잎이 눈에 따라왔다.)
- ⇒ ()

(2) 자신이 다음의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지 적절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여 글로 써 보자.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을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 ⇒ ()

(3) '소나기'라는 단어가 소설 제목으로 쓰였을 때와 일기 예보에서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글 짓기를 해 보자.

(4) '검붉은 진흙물'의 의미를 통하여 소년과 소녀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자.

5.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적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발표해 보자.

<소나기>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학습활동 문항을 작성해 보았다. 먼저 6차 교과서까지 중시하였던 인물과 관련된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 및 심정의 간접 제시 방법을 파악하고, 인물이 특성이 소설의 사건 전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인공이 매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학생들의 감정이나 행동도 써 보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서 주인공이 기쁘거나 슬플 때 그것을 공유하며 주인공과 함께 자의식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신이 살아오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발표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의식의 성장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내용에 이어서 결말을 써 보거나, 또는 이야기를 바꾸어 소녀가 죽지 않은 상황을 설정해 두고 뒷이야기를 써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용자적 측면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소설의 결말이 꼭 하나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넷째, 시 '바다가 보이는 교실'과 '어떤 마을'을 제시하여, <소나기>에 쓰인 시적인 표현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이다. 간결한 문장, 도치법, 심상, 비유 등 교사가 한 문장 정도 예시를 들어주면 학생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인데,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문학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어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은 문학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소나기'와 '검붉은 진흙물'의 상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문학의 언어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상징'을 통해서도 사건이나 인물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을 말해보는 활동은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있는 문항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막연하게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의 감동과 문학의 아름다움을 말해 보자고 하였는데, 필자가 제시한 학습활동에서는 문학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미리 선행하여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2-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계속하여 수록된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교과서 분석과 작품론 및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소나기>가 실린 대단원이나 교과서 학습활동을 통하여 이 소설이 수록된 양상이 매 국어과 교육과정마다 조금씩 바뀌는 특징을 잘 반영했음을 확인하였고, 교과서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점과 부족한 점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으로 <소나기>는 2차 국어 교과서부터 7차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었고,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학'과목이 정립된 이후로는 주로 소설의 '인물'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소나기>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고, 7차 교과서에 이르러서야 '인물' 요소에서 벗어나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문학적 감동과 내면화에 중점을 두어 <소나기>를 수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같은 작품이라도 각 교육과정마다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이 여러모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으로 <소나기>의 작품론으로는 성장소설의 면모와 미적 구성을 살펴 보았다. 이 소설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에 실릴 수 있던 큰 이유

도 이 소설이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장소설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소년(소녀)가 성숙하고 완전한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겪은 정서적 아픔과 정신적 성장, 현실의 인식의 과정을 주로 다루는 소설을 지칭한다. 이 소설도 미성숙한 소년이 중대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아픔을 겪고 성장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기>는 이를 읽는 독자들과의 성장을 돕기에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다. 독자들은 특히 자신과 같은 성장기에 있는 소년과 소녀의 잔잔한 사랑이야기에 흥미와 정서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소년과 소녀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성장의 단계에서 겪는 정서적 아픔들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과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련의 성장소설의 독서과정들은 학습자들에게 문학을 통한 성장 교육의 효과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나기>에서는 이러한 황순원 문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물이나 상황과 어우러져 서정소설로서의 문학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감동이나 정서적 감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간결한 문체나 상징적 표현으로 대표되는 미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결한 문체와 함께 <소나기>의 서정적인 분위기에 기여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들이다. 이 작품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비극적인 결말 유형을 취하는데, 이러한 비극적 인식에 다다르기까지 작품의 곳곳에는 상징적 장치들이 놓여 있다. 독자들은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소나기>의 이러한 미적 특징은 서사적 특성이 강한 소설들과는 다른 면

모를 보이는데, 사건은 강한 충격을 주면서, 문장은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더불어 상징적 표현과 서정적 분위기는 이 소설이 아름답다는 감상까지 갖게 한다. 학생들은 <소나기>를 읽으며 소설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문학의 아름다움 - 문학적 감동 및 표현의 아름다움을 모두 포괄한 개념 - 까지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의 초입에서 문학 정전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문학 정전의 형성 과정에서 작품 선정은 문학성 보다는 사회성에 초점을 두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정권의 변화와 함께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함과 심미성을 드러내는 문학 작품을 주로 수록하였는데, 이때 <소나기>가 적합하다고 선정되어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수록된 이유는 불사하더라도 2차부터 7차 국어 교과서까지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수록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전으로 삼을만한 교육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한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이유들이 2-7차 국정 교과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실리게 한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나기>에 대한 비판점도 없지 않다.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성이 배제되어 현실을 등지고 심미성만을 추구했다는 의견도 더러 있지만, 사회성이나 순수성은 모두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일부의 특성일 뿐이다.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학적 도덕성에 대하여 운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소나기>를 분석한 결과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룬 소설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문학작품을 선정한다면 <소나기>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2, 3, 4차 3-1 국어 교과서.

5, 6, 7차 1-2 국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 인적 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교육과학기술부, 2008.

2. 단행본

강진호 外,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김중신, 『소설감상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박헌호, 『한국인의 애독작품 : 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책세상, 2001.

박혜경, 「황순원 문학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새로쓰는 한국 작가론』, 상허학회, 백년글사랑, 2002.

송현호, 『선비 정신과 인간 구원의 길, 황순원』,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조구호, 「성장의 소나기」, 『소설의 분석과 이해』, 정림사, 2004.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시적 이미지의 미학」, 『한국 현대소설 작품론』, 문장, 1996.

최시환,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황순원, 『황순원 전집2』, 문학과 지성사, 1985.

3. 학술지

- 김남영, 「황순원의 소년 주인공 단편소설 고찰-〈황소들〉,〈소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3.
- 김중철,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영상적 기법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제2집』, 한민족문화학회, 1997.
- 박영식,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소나기〉 분석」, 『어문학』 제102집, 한국어문학회.
- 박은태, 「황순원 소설 연구 -서정적 세계의 구조와 존재론적 위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 우찬제, 「〈말무늬〉·〈숨결〉·〈글뜰〉-황순원 소설의 문체 분석을 위한 발견적 독서」, 『작가세계』, 1995 봄.
- 임채욱, 「황순원 단편소설의 서정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9.
- 최래옥, 「황순원 "소나기"의 구조와 의미」,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977.
- 최시한,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소설 단원 검토」,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2005.
- 황순원, 「말과 삶의 자유 II」, 『현대문학』, 1986, 5.

4. 연구 논문

- 고성혜, 「문학 교육으로서의 성장소설 연구」, 단국대 석사, 2007.
- 김세운,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경희대 석사, 2001.
- 김정은, 「중학교 소설 교육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 2005.

- 김현주, 「빈자리 배우기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 석사, 2004.
-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 1992.
- 민영희, 「6,7차 교육과정 중학교 소설 교육 비교 연구」, 고려대 석사, 2006.
- 박병수, 「중학교 소설 교육 : 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 2003.
- 엄숙용, 「황순원 소나기의 기호학적 분석」, 세종대 석사, 2004.
- 유미숙, 「성장소설 연구 : 중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 2007.
- 유보경, 「매체를 활용한 성장소설 교수-학습방안 연구」, 성신여대 석사, 2007.
- 이숙형,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분석」, 고려대 석사, 2000.
- 전소연,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2007.
- 조아라, 「황순원의 성장소설 연구」, 충남대 석사, 2007.
- 조정현,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의 비판적 검토」, 경희대 석사, 2004.
- 조항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재 성장소설 연구」, 홍익대 석사, 2007.
- 차가온, 「황순원 단편 소설의 상징체계 분석 : 「소나기」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 2004.
- 허지혜, 「중학교 소설 교육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 1999.

ABSTRACT

Research on educational value and teaching scheme of <Sonagi>

Lee, Ji-e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anonical' Is the formal essence of the text that should be taught From an educational standpoint, and literature education crucially function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such canonical.

Even though literary works in Korean language schoolbooks cannot directly become 'canonical',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such works encourage people to read and develop their tastes in literature.

The literary works in textbooks happen to be 'canonical' through this natural process. This study researches on Soonwon Hwang's <Sonagi> that thrived as 'canonical' and appears in every version of textbooks from the 2nd to the 7th curriculum.

It is remarkable that a single piece of writing to be in the

textbook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even if the novel is published in them out of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influencing in the curriculum. And we can estimate its value in education and literature. In-depth research in <Sonagi> with such value is significant to an individual who studies and researches literature.

This research raises three critical minds. Firstly,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 Korean's curriculum in each version of textbooks considering the novel appears in the 2nd to the 7th curriculum, and analyzes if the associated learning activities comply with curriculum. The investigation begins with the consideration in which the novel is included in the Korean language schoolbooks for long time and each may focus on different parts of the story.

Secondly, it research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novel as a part of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value of Soonwon Hwang's <Sonagi> published in textbooks for a long time. It is an analysis referring preceding researches in aspects of the story's Bildungsroman quality·aesthetic features and also emphasizing examples. <Sonagi> is categorized into Bildungsroman genre as it portrays development of self-consciousness of an immature hero, and it is also an aesthetic sentimental novel for its laconical style, poetic expression and symbolism. The research is conducted in this respect.

Thirdly, this research indeed contemplates effective teaching scheme with reference to two prior researches and investigation on

previously invented <Sonagi> teaching scheme. And the suggestion of new teaching scheme plan is described in the form of learning activity questionnaires as the subject of this analysis is those in 2nd-7th Korean textbooks.

The research had been planned for a good while in process of analyzing vitality in textbooks. It also confirms that the textbooks mention an element, 'character' in the novel primarily and as a Bildungsroman, educational value in which students can grow as the character in the story does and aesthetic features enhance aesthetics of readers.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aims to design new learning activities.

Planning of this research began with considering the literary grace and educational value this novel has, <Sonagi> is worth being studied alone rather than being a part of other research subjec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of this single novel, studying the tendency of mentioned items in 2nd-7th Korean textbooks and promoting educational value maybe as significant research in the light of the diversity of studies in literary works.

I hope this research could grant a significance in literary works often appear in textbooks and lays a cornerstone of the further studies that provide in-depth analyses and promote educational value.